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박XX
파견국가	일본	파견도시	오사카
파견대학	오사카국제대학	파견기간	2019.09~2020.08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위치: 오사카 동쪽 케이한본선 오와다역에서 도보로 5분 규모: 학교 건물이 붙어있고 주택가 사이에 위치하여 넓지 않음. 시설: 총 6관+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내에 편의점과 간단한 양식을 파는 카페와 야구용 운동장도 존재함. 분위기: 좁은 곳에 학생들이 밀집되어 북적북적하고 시끌벅적함. 옆에 부속유치원이 있어서 더욱 부각됨.</p>
2018-2학기 수업	<p>필수수업 14시간과 선택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필수수업은 독해, 커뮤니케이션, 청해, 어휘, 문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의 진행방식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로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방식 이어도 다른 느낌을 준다. 예를 들면 단어를 설명할 때 한국어 뜻이 아니라 일본어로 풀어서 설명하기에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다. 선택수업은 일본사회, JLPT, 일본문화(가라테, 기모노, 악기)등이 있다. 어느 수업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수업은 보통 9시 하루는 10시반에 진행된다. 반은 4개로 이루어지고 보통 3분의2는 중국+대만인 나머지는 베트남, 한국, 그 외 동남아인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 일본어와 중국어를 비교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일본어 필수수업이 13학점이나 되기 때문에 전공학점을 미리 채우는 것이 좋다.</p>

<p>2019-1학기 수업</p>	<p>코로나로 인해 중간에 코로나가 주춤한 한 달 외에는 비대면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p> <p>필수 수업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이었고 선택수업으로 경영학과 전공 수업을 들었다. 이 곳에서 전공수업은 청강형식과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청강의 경우 수업은 같이 듣되 시험이나 과제는 국제교류센터에서 주는 프린터에 감상문과 새로 알게 된 단어를 적는 것 정도이다.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과제나 시험도 일본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한 달만 대면수업을 하였기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인 학생들 중 절반만 수업에 집중한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면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이 모두다 일본어이기에 전공용어들이 한자로 많이 나와서 수업 중간중간 한자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님들도 유학생인 것을 알기에 빡빡하게 하지는 않고 하려는 열의를 주로 보려고 하신다.</p>
<p>프로그램 운영</p>	<p>두 번째 학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 프로그램은 없었다. 첫 번째 학기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여러 투어와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파티 등이 있다.</p> <p>투어의 경우 2달에 한번 플랜에 따라 일본인 지원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움직이며 학교에서의 지원이 있어서 싸게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오사카 투어, 고베 투어, 돗토리 투어가 있었으며 히로시마 투어도 있었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취소되었다.</p> <p>봉사활동의 경우 2주에 한 번 정도로 빈번히 있다. 공항에서 일본어를 몰라 곤란해하는 외국인을 도와주는 공항봉사 프로그램이 가장 유명하다. 이 외로는 지역의 행사를 도와주는 지역봉사 프로그램, 주위의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같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봉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p> <p>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공항봉사 밖에 없고 매번 다른 일본인과 만날 가능 성이 높아 친해지기에는 쉽지 않다. 공항봉사의 경우 식대도 나오고 일본인 동료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도 쉽지만 주말에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인 친구를 만들기 어렵기에 따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p> <p>그래도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같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에 유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여름에는 39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덥고 겨울에는 영하를 보기 힘들다. 눈을 딱 한 번 봤을 정도로 춥지는 않지만 주위가 다 평지여서 바람이 싸기에 어느 정도의 방한은 필요하다. 그리고 여름이 습기로 인해 하루 종일 한국에서 비 내린 뒤의 느낌이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낮에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활기차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주위에 주택가가 많아 밤이 되면 어두컴컴하고 사람이 그다지 다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진의 경우 약한 지진만 몇 번 경험했다. 그리고 도로가 좁아서 보도가 없는 도로도 꽤 많고 보도가 있어도 좁고 자전거가 아주 많이 다녀서 언제나 좌우 그리고 뒤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가 많이 다닌다고 보는 것이 편하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0)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HAPPYBEANS PLACE라는 학교와 연결된 외부숙소(쉐어하우스)를 사용하였다.</p> <p>숙소는 마당, 부엌,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 거실, 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 <p>분위기는 숙소 내 멤버 구성에 따라 많이 다르다. 저의 경우는 다들 방에 있고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강했기에 딱히 다같이 무엇을 하는 것은 없었다. 다만 중국인이 많기에 가끔 중국인 파티가 열리기도 한다.</p> <p>규칙은 월요일 마다 다같이 모여서 청소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부엌은 사용 후 원 상태로 되돌린다 정도이다. 하지만 부엌은 거의 언제나 지저분하기에 주의를 요한다.</p> <p>유의사항으로는 방음이 잘 안되고 2층 남자 방의 경우 위에서의 소음이</p>

	<p>신경 쓰일 수도 있다. 그래도 다들 수업이 9시에 시작하기에 밤 늦게까지 시끄러운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냉장고, 책상, 침대, 에어컨, 각종식기 등이 지원되고 다들 대화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기에 타지에서 외로움을 조금은 덜 수 있다. 다만 쉐어하우스 회사가 이 곳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관리가 부족하다.</p> <p>자전거가 무료로 지원되어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많이 편리하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이고 역까지도 5분거리이다. 5분 거리에 중형 슈퍼와 편의점이 있고 그 외에도 슈퍼가 많고 도보로 30분 거리에 대형 쇼핑몰과 돈키호테도 있기 때문에 지리를 어느 정도 외우면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주위에 미니 공원정도 밖에 없어서 산책할 만한 곳은 적다.</p> <p>인터넷에 검색하면 숙소 사진이 있기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간혹 쉐어하우스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좋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점심의 경우 학교식당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도시락을 싸갔다. 학교식당의 경우 덮밥류는 400엔, 정식은 450엔 정도이다. 메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식메뉴이고 매일 매일 메뉴가 바뀌는 것도 있다. 또 카페에서 파스타와 피자도 파는데 평균 400엔 정도이다.</p> <p>도시락의 경우 그 전날 미리 요리해놓고 냉장 보관 후 학교에서 먹는다. 각 건물마다 전자레인지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p> <p>저녁의 경우 편의점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슈퍼에서 반찬이나 즉석식품 등을 구매해 먹거나 외부식당을 이용하였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8시쯤 되면 타임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교 주변에 슈퍼가 많고 규모도 작지 않아서 슈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약된다.</p> <p>외부 식당은 학교 근처에는 조그마한 식당 밖에 없고 숙소 근처에 요시노야 같은 규동집, 정식 체인점, 일본식 중화요리 체인점, 롯데리아 등이 있다. 20분 정도 걸어가면 맥도날드 같은 큰 식당들도 있다.</p> <p>식사 비용은 외부식당의 경우 보통 700엔~800엔, 즉석식품 구매 시 500엔~700엔, 직접 요리하면 300엔~500엔 정도이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학교는 도보로 5분거리 통학했습니다. 같은 숙소에 살던 일부 학생은 자전거를 활용했는데 이 경우 3분이내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p> <p>케이한의 경우 한국에서 유명한 우메다나 난바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환승하거나 근처에서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우메다는 걸어서 10분이기에 시도해볼만 하지만 난바는 40분정도 걸어야 하기에 환승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승하지 않고 걸어갈 시 우메다 까지 한시간에 편도 270엔 난바는 환승하고 한시간 450엔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베나 나라는 한시간 반정도 소요됩니다. 그대신 교토는 평균 50분에 기온시죠까지 400엔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토에는 자주 방문하게 되지만 타지역은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위에 도보나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심지로 나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50만원	귀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특별 항공편 이용
Fees	x	
보험료	일본 국민 건강보험 매달 약 2000엔 정도, 학교에서 따로 1만엔 정도의 보험 가입 의무로 함	
숙소	매달 46000엔 (전기, 인터넷, 난방 등 포함)	
식비	3만엔~ 6만엔	일본은 제대로 된 외식의 경우 2000엔 이상 나오기 때문에 외식을 어느 정도 하나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큼,
교통비	약 3천엔	도보로 필요 물품구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갈 때만 교통비 지불
책값	x	

기타1		
기타2		
합계		코로나로 인한 변수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적지 않음.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직접 요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리를 어느 정도 배우는 것이 좋다. 저의 경우 요리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갔기에 주기적으로 자료 검색을 하면서 직접 요리했다. 직접 요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비용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요리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인타운도 한 시간이면 갈 수 있어서 고추장 같은 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서 곤란은 크지 않다. 저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식당이용이 곤란하였던 경우도 있어서 특히 요리를 많이 했다.

모든 것이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자를 되도록 많이 아는 것이 좋다. 영어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화를 잘 못한다고 차별하거나 하는 것은 없지만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유학 전 한자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특히 OIU의 주위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기에 오사카 중심지 같이 한국어 메뉴판이 있는 곳과 다르다. 식당을 가더라도 자신이 직접 메뉴판을 읽어야 하고 쇼핑을 하더라도 직접 읽어야 한다. 한자를 읽지 못하면 많이 힘들다.

한국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집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들고 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숙사 생활 소요비용을 생각하고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도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용품은 바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사려고 하면 더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미루다 보면 애매 해진다.

마지막으로 OIU의 경우 유학생의 생활 모든 것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물론 요청을 하면 다 확인해주고 알아 봐주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핸드폰도 계약하고 통장도 만들고 주민등록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에 자신이 도착하면 어떠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1학기는 코로나 발생 전 2학기는 코로나 발생 후라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경험담과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는 주로 같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OIU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대신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려 하였지만 과거 글로벌빌리지 시절 친구들 이외에는 지속적인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유학생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거의 중국, 대만, 베트남 학생들이기에 만약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과거 글로벌빌리지에 살면서 여러 외국인들과 교류하면서 거부감이 크지 않았기에 여러 학생들과 교류했지만 다른 한국인의 경우 교류가 적고 자기들끼리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자리가 많으니까 무작정 지원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외국학생들과 다르게 멘토 프로그램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 점에서 많이 곤란함을 겪었지만 그래도 끝날 때가 되면 혼자서 문제없이 쇼핑하고 놀러 다닐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학기 코로나 발생 후에는 수업이 코로나가 소강 상태였던 한달만 대면수업이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저 혼자였고 봄방학 기간에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던 것도 취소하여 향수병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오사카는 한인타운도 있고 슈퍼에서도 소주나 막걸리 같은 한국음식도 팔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려웠지만 기존의 유학생 친구들과 교류하고 일본의 조미료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소소하게 유학을 즐겼습니다.

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곳에서 얼마나 하고 오는지 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에 관심이 없던 일본인들과 교류를 해보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더 여러 지역을 방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의 경우 매주 새로운 곳을 가려고 노력하였고 꽤 많은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한국에서 있는 생활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금과 시간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놀러가는 것도 그 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다들 소심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일본인들도 외국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많이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면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면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들 가서 잊을 수 없는 추억 쌓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숙소의 1층거실



오사카 고분 축제 봉사활동



할로윈 USJ



동급생들과 회식



벚꽃구경



알바 가게 요리사님과 사진



나라공원 사슴과 사진



수료식